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년간 41조2000억 투입

맞춤형 금융지원 오늘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이 가운데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 5000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000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다.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빛을 갈을 능력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빛을 갈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자금(30조원)이 채무 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

유동성 10.5조원·경쟁력 강화 29.7조 등 상환능력 있는 차주 대상

폐업 위기 소상공인 '채무 조정' 30조 규모 새출발자금 도입도

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한대출 프로그램(8조7000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 2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액 범위 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2차 추가 경영예산으로 2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 늘렸다. 추가 공급 규모는 3조 원이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존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

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임직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존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 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2021년의 연간 공급액보다는 26%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2017~2019년)과 대비해선 16% 늘어난 규모다.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

(3조25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은 신보와 기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임직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은 관련 대출상품은 기존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보 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저리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한 일시적 성격 위주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세제개편 수혜자는 '고소득자'

연봉 '1억 안팎' 83만원 감세...2700만원은 7만2000원 그쳐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46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포인트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저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 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연합뉴스

총급여역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비 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지 구조다.

이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 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 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 30만원 줄인 것이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하고 특산물 받으세요"

농협은행, 무안서 홍보 전시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고향 기부에 대한 답례품 역할을 할 고향유자, 곡성 멜론, 나주 배 등 각 시군 특산품을 홍보하는 사진과 글귀를 전시했다. <사진>

내년 1월1일에는 자신의 주주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된다. 답례 물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선정된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된다.

농협은행은 캐릭터 '울림프렌즈'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와 답례 특산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만화를 제작했다.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우리 농축산물 답례품을 알리고자, 출품작을 지역축제 및 시군에 순회 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 나눔 배식 봉사 (주)광주신세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구노인복지관에서 170여명의 어르신들의 배식을 돕는 '사랑 나눔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신세계 제공>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공모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곳과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된 3개사와 콘텐츠 제작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본편 제작 단계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TV시리즈 및 극장용 우수 창작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모집했다.

선정된 작품은 ㈜스튜디오에이엘광주(공동대표 신창환, 김복일)의 OTT플랫폼 기반 시리즈물 '나노리스트'와 ㈜캡프라이어애니웍스(대표 나용근, 김다혜) TV시리즈 3D애니메이션 '레인보우버버 잭', ㈜스튜디오버튼(대표 김호락) TV시리즈 2D

애니메이션 '다노맨' 등 총 3개이다.

'2022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사업은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애니메이션 전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제작지원금은 총 14억4000만원 규모다. 지원금은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과 선정 기업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이외 진흥원은 선정 콘텐츠 지식재산(IP) 성장 지원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마케팅 참가, 투자 컨설팅 및 피칭, IP 프로모션 등 다양한 유무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국민 10명 중 7명 "건보료 추가 인상 부담돼"

다음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를 조정 심의를 앞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험료를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제기자총연합회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다는데서 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82.1%에 달했고, '낮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를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 미만 인상'(15.5%), '1~2% 미만 인상'(8.9%), '2~3% 미만 인상'(3.3%) 등의 순이였으며 직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은 1.1%로 가장 적었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를 인상했을 때 3.2%가 가장할 경우 2027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상회하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해 보험료를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64.0%로, 찬성(24.7%)보다 훨씬 많았다.

보험료를 법정 상한 개정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반면 반대 측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광주은행 5000만원 출연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2022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행을 위해 5000만원을 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특례보증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광주광산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함께 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취급 뒤 1년 동안은 광산구가 4.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광주은행은 1년간 0%의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2022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기존 협약은행인 광주은행 외에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도 참여한다.

광주신보는 올해 광산구 소상공인 대상으로 51억6000만원 규모 보증지원을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2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9	20	25	29	33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6,118,853,344	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9,119,356	69
3	5개 숫자일치					1,527,232	2,6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665
5	3개 숫자일치					5,000	2,258,426